거리·입장·렌탈…곤지암보다 스마트할 수 없다

서울에서 40분 거리…수도권 최대 규모
스키장 입장시간·장비렌탈 불편 최소화
V맨 운영…원포인트 강습·서비스 강화

한때 스키라면 실력과는 별개로 울긋불긋한 스키복과 고글 등 화려한 의상과 고가의 장비로 남의 시선을 끄는 '과시형 레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겨울철 국민레저'로 불릴 정도로 보편화된 요즘, 이런 허세로 스키장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비렌탈 부터 리프트 이용, 애프터스키, 스키장까지 이동거리 등을 비교하며 가격 대비 효율의 이른바 '가성비'를 꼼꼼히 따진다. 그러면서도 기대를 만족하거나 원하는 것이면 아낌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소비'의 모습도 있다. 올 겨울 경기도 광주의 서브원 곤지암 리조트(이하 곤지암 리조트)를 보면 '스마트하다'는 표현으로 잘 어울리는 겨울 레저 트렌드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서 40분 거리 '수도권 최대 규모'

곤지암 리조트는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다. 오고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드는 강원도 스키장에 비해 경기도권 스키장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다. 지리적 이점에 비해 경기지역 스키장들은 아무래도 리조트나 슬로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한계이다. 하지만 곤지암 리조트는 수도권 스키장 중 최대 규모인 42만9752m²(약 13만평)의 면적을 자랑한다. 슬로프도 최장 1.8km를 포함해 9개 총 연장이 7.3km에 달한다.

●3대가 즐기는 스키

올해 곤지암 리조트는 정체기에 접어든 스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3대가 다시 찾는 스키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등 3대 가족이 함께 스키장을 찾을 수 있도록 세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스키 1세대로 여가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스키장을 다시 찾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스키원로들을 주축으로 한 '스키클럽 곤지암'을 창설했다. '스키클럽 곤지암'은 스키 1세대들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스키장을 찾아 스키 저변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스키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스키어를 위한 안전 패트롤 지원, 어린이 스키어를 위한 기술 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미래의 스키세대인 어린이 대상으로는 겨울방학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키를 배울 수 있는 전용 강습 프로그램 '곤지암 어린이 스키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전용셔틀버스로 픽업부터 스키장 도착, 스키강습, 식사, 배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스마트·고객친화 서비스로 승부수

곤지암 리조트는 전부터 스마트한 슬로프 운영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미타임패스'와 슬로프 입장시간을 최소화하는 'RFID게이트 시스템', 장비 렌탈과 이동시간을 최소화한 '렌탈 이원화 시스템', '온라인예매제', '슬로프 정원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강사가 슬로프를 순회하며 무료로 원포인트 강습을 해주는 '슬로프V맨'와 주차장과 스키하우스에서 장비렌탈과 착용, 슬로프 입장을 도와주는 스키장의 컨시어지, '곤지암 V맨'을 운영해 초보스키어와 가족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했다.

이밖에 요즘 스키장들이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는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도 강화해 스파 '스파라 스파'의 겨울전용 스파 프로그램, 크리스마스&송년파티, 스키장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실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서 차로 40분 거리인 곤지암 리조트는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미타임패스, 렌탈이원화, 온라인예약제, 슬로프 정원제 등 스마트한 운영으로 정평이 난 스키장이다. 올해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즐기는 스키 문화 조성과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곤지암 리조트

아시아나 타고 '세계 맛기행'

세계 6곳 스탬프 찍으면 항공권 증정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미식여행을 테마로 한 '아시아나 월드투어 챌린지: 고메(Gourmet)편'을 시행한다.

아시아나 월드투어 챌린지는 쿡방(요리 프로그램)과 스타셰프의 등장으로 넓어진 미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계획된 스탬프 랠리 이벤트로 2016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 가운데 오코노미야키와 타코야키로 유명한 오사카, 동남아 식도락 여행의 명소 방콕,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격전지 뉴욕, 세계 3대 미식국가의 대표 도시 베이징, 파리, 이스탄불 등 6곳을 챌린지 도시로 정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6개 도시를 모두 방문한 후 공항에 비치한 스탬프를 날인한 탑승객에게 '월드투어 챔피온' 골드 인증서 및 일등석 항공권을 증정한다. 5개, 4개 도시를 방문한 탑승객에게도 각각 실버·브론즈 인증서 및 비즈니스·이코노미석 항공권이 제공된다. 챌린지 미션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첫 출국할 때 공항에서 미션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김재범 전문기자

빈 필하모닉과 '신년맞이'

웨스틴조선호텔, 신년음악회 패키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은 신년 이벤트로 '201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사진)'를 그랜드볼룸에서 실황 생중계한다. 2016년 1월1일 오후 5시부터 9시40분까지 진행하며 와인 페어링한 6코스 정찬을 포함한 구성이다.

이와함께 이그제큐티브 디럭스룸 숙박을 더한 신년 패키지 '더 하모니어스'도 함께 출시했다. 패키지 기간은 26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며, 빈 필하모닉 생중계 관람권 2매와 더 메나쥬리의 뉴이어 브라우니 세트 선물이 포함된 '심포니'와 6코스의 정찬과 와인까지 풀 패키지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두 가지다.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매년 다른 지휘지가 공연을 맡는데 2016년은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를 맡는다. 웨스틴조선호텔은 2013년부터 매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실황 생중계하고 있다. 공연을 위해 그랜드볼룸에 돌비 5.1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했고, 그랜드볼룸의 천정을 백 만 개의 은하수 전구로 장식했다. 또한 클래식 평론가 장일범이 해설을 맡는다.

김재범 전문기자

강원도 3대 스키장, 외국인 유치 손 잡았다

관광공사와 연계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

한국의 겨울 설원을 즐기세요.

올해 국내 스키장의 마케팅 화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 스키장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연합 마케팅에 나선다. 강원도의 정선 하이원리조트, 평창 용평리조트, 홍천 대명비발디파크는 강원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고급 스키 전문 관광 상품인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Ski Korea Festival)을 3월초까지 총 17차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중국, 홍콩, 러시아, 동남아 등에서 차수별로 100명에서 400명씩 총 5000여명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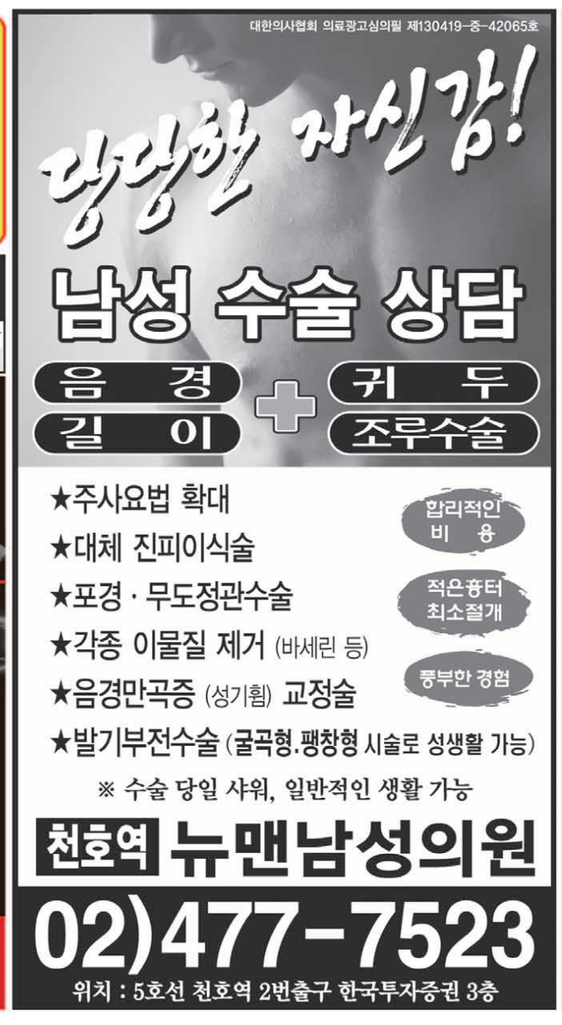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은 그동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용평리조트의 '펀(fun) 스키 페스티벌'과 하이원 리조트의 '고고(gogo) 스키 페스티벌' 등 리조트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로 구성한 별도 브랜드를 운영해 왔다. 이번 겨울 시즌에는 대명비발디파크가 스키레저와 우리 음식 문화 체험을 접목한 '비바 스키 앤 케이 푸드 페스티벌'(Viva Ski & K-Food Festival)을 기획해 참여했다. 스키 코리아 페스티벌은 3박4일 일정으로 스키강습과 대회 및 시상식, 공연관람, 문화·음식 체험, 각종 이벤트 등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리조트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미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관광객의 지역을 세분화해 행사를 진행한다. 중화권의 경우 21일과 22일 현지 여행사 관계자 60여명을 초청해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1월말에는 용평과 하이원에서 중국 관광객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도 동남아 스키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현지에서 연다. 하이원 리조트, 대명 리조트, 용평 리조트와 공동으로 현지 여행사 비즈니스 상담회, 언론 설명회, 관광공사 동남아 해외지사장-스키장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필리핀 '시눌룩 페스티벌' 1월 세부서 개최

필리핀관광청은 2016년 1월 7일 세부 시티에서 '시눌룩 페스티벌'(Sinulog Festival·사진)을 개최한다. 시눌룩 페스티벌은 세부에서 열리는 연례 축제로 11일간 진행한다. 매년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랜드 퍼레이드는 17일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마라톤, 페이스 페인팅, 사진 찍기 대회 등으로 해외관광객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시눌룩 페스티벌을 즐기려면 필리핀항공, 세부퍼시픽항공을 이용해 세부막탄 국제공항 도착 후 세부 시티까지 택시로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